



남원소방서 주천 여성의용소방대, 염색 봉사활동

남원소방서 주천면 여성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가 교통이 불편한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염색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의소대 소속 최순자·이해자·심재현·박은진·김채원 대원은 안곡마을과 신기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염색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시내 미용실을 방문하기 힘든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최순자 대원은 “어르신들을 돕고 작게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무척 뿌듯하고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경찰서, 지적발달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남원경찰서(서장 문영상)는 여름철 성폭력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4일, 지적발달장애인 편의시설을 찾아 지적장애인 및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장애인들이 성폭력 발생시의 상황을 인지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활성화 의무를 설명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성폭력의 개념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제시하며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디에프,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특징,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문영상 남원 경찰서장은 “장애인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범죄로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관심과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며, 장애인이 안전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피서지 내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5일 칠보물테마유원지에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를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피서지 범죄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물놀이 시설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품 도난 예방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예방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기초질서 준수 등 피서지 안전수칙 및 범죄예방을 담은 홍보 전단지 제작·배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락앤런, ‘트레일빌리지’ 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방문객 유치·지역 소비·청년 체류·관계인구 형성으로… 지역 활성화 모델 구축

장수군과 (주)락앤런이 함께 추진한 ‘2026 콜밸리트레일 레이스’가 전국 참가자를 장수로 유치하며 지역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주)락앤런은 장수트레일레이스 운영과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수 트레일빌리지’를 연계해 외부 방문객 유치, 지역 소비, 청년 체류, 관계인구 형성으로 이어지는 지역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콜밸리트레일레이스 행사 기간 바우처 참여 상점에서 집계된 전체 매출은 1억1천만 원대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지역 음식점과 카페, 한우·사과 등 농특산물 판매점을 이용하며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바우처 사용액으로 확인된 매출 외에도 참가자들의 현금·카드 추가 결제와 바우처 미사용 소비가 폭넓게 발생했다. 숙박과 주유, 편의점, 교통, 관광지 이용 등 집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소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역경제 파급 범위는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 운영 과정에는 지역 업체와 주민 인력도 참여했다. 식사와 숙박, 차량 운송, 행사장 설치, 물품 구매, 인력 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내 거래가 이뤄졌다. 행사 개최에 투입된 사업비가 지역 업체의 매출과 주민 소득으로 다시 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전국 참가자를 장수로 유치하는 핵심 관광 콘텐츠다. 장수 트레일빌리지는 대회 참가자와 청년이 지역에 더 오래 머물고 다시 방문하도록 연결하는 체류 기반을 담당한다.

장수 트레일빌리지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반으로 트레일러닝과 장수의 자연환경, 숙박, 식사, 농특산물, 주민 체험을 결합하고 있다. 트레일하우스와 커뮤니티 거점을 활용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장수에 머물며 지역을 경험하고 주민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회 참가를 계기로 장수를 처음 방문한 청년이 트레일빌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장수를 찾고, 장기 체



류와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연결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다. 행사 참가자를 장수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재방문 고객과 관계인구, 생활인구로 발전시키는 방식이다.

트레일빌리지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 음식점과 상점, 숙박시설, 관광지를 이용하며 지역에서 소비한다. 일부 참여자는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 지원, 콘텐츠 제작,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해 새로운 활동과 일거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포츠 행사와 청년마을을 연계한 락앤런의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수트레일레이스가 사람을 모으고, 트레일빌리지가 체류와 재방문을 지원하며, 지역상권과 주민이 이를 소비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콜밸리트레일레이스는 참가자들이 장수읍에서 출발해 방화동자연휴양림과 덕산계곡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장수군의 산림과 계곡, 농촌 경관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원이 되고, 참가자들의 이동과 체류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농가, 관광지, 체험 프로그램을 대화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면 참가자의 체류시간과 1인당 소비액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계절별 트레일러닝 행사와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행사일에 집중된 소비를 연중 지역경제 효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대병원, 하절기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전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은 5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과 함께 ‘하절기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휴가와 방학 등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하절기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본관 앞에 설치된 이동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병원 직원과 내원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참가자들은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도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



고산농협, 조합원 교육생 ‘농심천심운동’ 특강

고산농협은 최근 협동조합 이념교육 아카데미에서 조합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이해와 가치확산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농협이 추진하는 범국민 운동인 농심천심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손병철 조합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농심천심운동의 추진 배경과 핵심 가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해야 할 역할 및 현재 고산농협이 실천하고 있는 농심천심운동 등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촌 활력 회복, 협동조합 정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손병철 조합장은 “농심천심운동이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농업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고, 협동조합 정신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주=염태복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역량강화 실무교육 실시

순창군은 지난 4일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및 지회 회장·총무 등 43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협의회 역량강화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이 귀농귀촌 정책과 보조사업 추진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에 귀농귀촌 정책과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을 소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 실무를 주제로 교육과 토론을 실시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서신지사 272-9417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4172-3800		
호지지사 010-6845-9935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